

청소년과 호흡한 불교 30년

서울 목동청소년수련관 30주년 행사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청소년수련관(관장 경륜)은 개관30주년을 맞아 10월 27일 '청소년 희망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을 비롯해 문영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덕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 등 시설 관계자와 청소년 및 지역주민 4,000여 명이 참석해 30년간 운영에 최선을 다한 소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즐겼다.

청소년 난타동아리 '두드림'의 공연으로 문을 연 행사는 △'함께한 30년, 미래를 이끌 30년' 기념식 및 우수표창 △마술, VR, 직업체험 등 부스 △청소년 팀대항 '흑백전' 등으로 구성됐다.

관장 경륜 스님은 "올해 정년을 맞아 개관 30주년을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청소년들과 만날 수는 없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참여자 요구를 반영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원 기자



"기부자 뜻 모두 환자에게"

동국대병원, 기부자 유가족 초청행사

동국대일산병원(병원장 조성민)은 10월 30일 기부자 유가족을 초청해 병원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이진호 의료원장, 조성민 병원장 등 유가족 5명이 참석했다.

동국대일산병원은 2005년 병원 개원 준비 시 故한기성 기부자로부터 기증받은 기금으로 조혈모세포이식 병동을 최신 시설로 단장했다. 유가족들은 병원에서 준비한 환영식서 한기성 기념 영상 및 병원 발전상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이들은 71병동에 마련된 한기성 기념 동판 제막식에 참석하고 해당 병동 시설을 둘러봤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가족은 "뜻깊은 기념행사에 초대해 준 병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버지 이름의 기념 병동이 많은 환자에게 좋은 치유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신성민 기자

"형기 마친 재소자들 평범한 삶 보며 보람"

Interview

교정의날 국민포장 받은 승천 스님



조동제 전북지사장

1984년부터 35년째 교정활동
불교교리대회 · 발원문 쓰기 등
재소자 교화 위해 행사 열어

"재소자들이 형기를 모두 마친 뒤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리며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10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3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한 정읍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은 35년간 재소자들을 위한 교정교화활동에 힘 쏟으며 가장 행복한 순간을 이 같이 밝혔다.

승천 스님이 교정교화활동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때는 1984년이다. 순간의 실수로 인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출소자가 또다시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죄의 소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재소자들의 교정교화활동에 뜻을 두게 됐다.

"재소자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사회의 다른 봉사활동 못지않은 보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면서 이들이 다시 건강하게 사회에 돌아가면 우리 사회도 한층 밝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 전주교도소 독지방문위원으로 교정교화활동에 뛰어든 후 1997년 종교위원으로 위촉된 승천 스님은 어느덧 35년째에 이르고 있다.

"수용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고, 밝고 명랑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집에 남은 가족들도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주어진 환경이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회의 목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종교인들이 교정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승천 스님이 그동안 전주교도소에서 개최한 불교교리발표대회, 발원문 대회, 부모님께 편지쓰기 같은 행사에 참여한 연인원만 4만 명이 넘는다. 전주교도소의 불교행사를 주도하고 후원한 일도 1천회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을 맡으면서는 불우수용자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수용자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며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늘 재소자들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을 신경 쓰는 승천 스님은 혹서기에는 삼계탕과 얼음생수를 전달하고, 명절이면 합동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송편과 제수용 과일을 전달하기도 했다. 범죄 예방활동에도 나서 2000년부터는 전주지검 정읍지청 범죄예방 대책위원으로, 정읍경찰서 자문위원과 경승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스님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수행방편 삼아 활동을 하다 보니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한편 승천 스님은 일광사 신도들과 함께 매년 경로잔치를 열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년에 2차례씩 자비의 쌀을 전달해오고 있다. 스님은 불우청소년 선도사업, 무의탁 독거노인 돕기, 장애인복지관 지원 등을 통해 그늘진 사람의 아픔을 부처님 자비로 어루만지는 사회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가을 국화로 지역농민과 win-win"

부산 장안사, 개산 맞아 기장 화훼사업 농민 격려



사찰이 지역 농민을 돕고 서로 상생하는 사례를 보여준 뜻 깊은 행사가 개최됐다.

부산 기장군 천년고찰 장안사(주지 정오)는 개산 1345주년을 맞아 '제2회 가을 국화향기를 품다'를 10월 27일 장안사 경내에서 개최했다.

개회식은 △개산조 원효대사 헌다공양 및 설법전 현판식 △경과보고 △축사 △분재품평 시상식 △격려사 △축시낭독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를 시작으로 11월 4일까지 총 9일간 열린 국화축제에는 기장군농협기술센터와 기장군 국화분재동호회 그리고 도시화훼학교가 함께 수준 높은 국화분재 작품 450점을 선보여 화려함을 더했다. 아울러 국화분화 2700여점도 전시해 장안사를 찾는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기장군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기장군의회가 후원해 힘든 농민을 격려하고 직접 국화분재도 판매해 활기를 띄었다.

아울러 장안사는 개회식에서 국화분재 품평 시상식을 열고 금상 30만원(1명), 은상 20만원(2명), 동상 10만원(3명)을 선정해 격려했으며, 천년고찰 장안사를 국화전시장으로 회향해 고즈넉함이 어울리는 품격 높은 행사로 지역 농민을 도왔다.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은 "처음 개산대재를 개최했을 때와는 달리 지역 농민을 위해 관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천년고찰이 기장에 있어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다. 1345년 역사를 가진 소중한 문화재인 장안사에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하고 앞으로도 지역 화훼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장안사는 설법전 현판식을 열고 준공을 기념했다. 장안사 설법전은 지하 1층 공양간, 2층은 설법공간으로 활용된다. 현재 장안사는 '장안사 불사 10년 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해동전과 종각, 천왕문 등 불사를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무심사, 삼성각 중창 낙성식

前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 등 300명 동참



낙동강 무심사(주지 무심)는 10월 28일 삼성각 중창 낙성식을 비롯해 칠성여래 · 용왕 · 산신 점안법회 및 제5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낙성식에는 前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과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무심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자님들이 마음을 내주셔서 불사를 원만 회향했다.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팔공산 당산제 효사랑 잔치

지장선원, 10월 28일 헌공 · 헌향 등



팔공산 지장선원(선원장 지공)은 10월 28일 '제4회 당산제 및 효사랑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연등사 회주 덕륜 스님, 만민선원장 만민 스님, 지장선원 육법공양봉사단, 지역단체장, 홍사단 애기애타 웃음봉사단, 풍물단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헌공, 헌향의식에 동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천 거조사 오백나한대재

주지 태관 스님 "정혜결사 정신 잇자"



팔공산 영천 거조사(주지 태관)는 10월 27일 오백나한상을 모신 영산전(국보 제14호) 앞마당서 나한대재를 봉행했다. 주지 태관 스님은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수행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는 보조지눌 스님의 정혜결사 정신을 이어, 자비와 평화의 불국정토를 이루는 나한대재를 봉행한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탱)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 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탱)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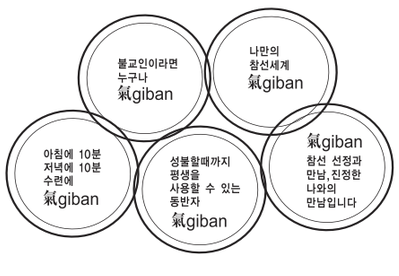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